

# DDA, 2006년 3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지난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 시한으로 정해 놓은 4월 말이 약 한달 여 남은 가운데,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모델리티 합의안의 도출은 물론 향후 DDA 협상 전망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 1. G-6 논의 동향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을 포함한 캐나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은 지난 달 각 그룹들이 제시한 관세감축안을 토대로 농업과 비농업분야에서의 실제 관세감축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각기 다른 관세구간, 다른 감축률을 적용하여 각국의 평균 감축률이나 감축 이후의 평균 관세율 등을 기초로 실질적인 관세감축 여부를 확인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월 말 경에 나온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G-6의 파리 고위급 회담, 런던 각료회의(3월 10, 11일)가 이어 열렸으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요국간 입장차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3월 협상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지게 되었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 2. WTO 농업위원회 3월 회의

이번 농업위원회 3월 회의에서는 세 번의 비공식 전체회의와 각 분야별 Room F 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쟁점을 빼고는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을 둘러싸고 국내 소비량을 증량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수출국들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편 EU는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행 수입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되 수입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속한 G-10은 지난 2월 회의에서 제시하였던 민감품목 제안서가 현재 제시된 각 그룹별 입장차를 절충한 중간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기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특별품목에 대해 제안서를 배포하였는데 이 제안서에 대해 G-33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핵심 쟁점에 밀려 거의 논의되지 않던 의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G-33은 특별수입구제조치(SSM) 관련 제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수출국들은 G-33이 제시한 SSM의 대상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반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낮고 구제조치는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블루박스, 그린박스, 품목특정 AMS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되어 있는 상한의 축소 여부와 기존 블루박스 및 신규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국은 블루박스를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로 줄이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EU는 기존 블루박스에 대해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EU는 신규 블루박스에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여 블루박스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G-20이 제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직불금 지급기준을 기존의 'fixed'에서 'fixed and unchanging'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미국, EU, G-10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품목 특정 AMS에 대해서도 '99-'01 3년 평균을 기준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미국과 UR 이행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수입국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아프리카-최빈개도국(LDC) 그룹 공동 제안서가 배포되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팰코너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문안(reference paper)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3월 농업주간에는 WTO 전체 회원국 차원의 회의와 동시에 G-6 회의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G-6를 포함한 G-11 국가들은 이달 27, 28일간 고위급 회의를 가지고, 4월 4, 5일에는 G-6의 고위급 협상이 잠정 예정되어 있다. G-11 회의에서는 농업과 비농업협상에서 기술적 쟁점과 함께 4월 말에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협상 전략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